

2011년(제55회) 행시 행정직렬 제2차시험 시행

I. 출제경향

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2011년도 행정고시 제2차 시험이 고려대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. 1일차 응시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직(전국)의 경우 응시대상 995명 중 920명이 응시하여 92.5%의 응시율, 일반행정직(지역)의 경우는 응시대상 280명 중 252명이 응시하여 90.0%의 응시율을 보여, 전체적으로 응시대상 2,397명 중 2,191명이 응시하여 91.4%의 응시율을 보였다.

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의 시험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. 특히 첫날 시행된 행정법은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행정쟁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,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문제 등이 출제된 반면, 재경직 및 기타직렬에서는 행정계획과 관련한 문제, 수리거부 및 국가배상과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.

행정학의 경우는 최근에 중요시 되는 공공성 문제, BTO와 BTL 문제 및 인사행정과 조직문화와 교육훈련제도와와의 연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.

경제학의 경우는 재경직렬에서는 미시경제학 부분이 45점, 거시경제학 부분이 55점으로 출제되었고, 특히 제2문과 제3문에서는 거시경제학 부분으로서 개방경제와 총수요-총공급 및 정책방안과 경제성장론에서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 큰 특징이다.

재정학의 경우는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문제, 소득세와 상품세의 비교문제가 출제되어 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.

정치학의 경우는 중국모델의 비교, 정당개혁 및 흡스의 사회계약론과 죄수의 딜레마 등에서 출제되어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.

국제경제학의 경우는 다소 수험생들이 소홀히 공부할 수 있는 DD-AA모형, Krugman의 독점적 경쟁모형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.

II. 응시현황 [1일차 (6.28) 응시현황임]

직 렬	선발예정 인원	응시대상	응시 인원	응시율
계	255	2,397	2,191	91.4%
행정직(일반행정:전국)	112	995	920	92.5%
행정직(일반행정:지역)	30	280	252	90.0%
행정직(법무행정)	10	106	89	84.0%
행정직(재경)	75	763	711	93.2%
행정직(국제통상)	17	164	144	87.8%
행정직(교육행정)	5	42	35	83.3%
사회복지직(사회복지)	2	15	14	93.3%
검찰사무직(검찰사무)	2	16	12	75.0%
출입국관리직(출입국관리)	2	16	14	87.5%

※ 1일차(6.28) 응시현황임